

협회소식



◀ 중국의원협회와 체결식

- 일시 : 2007. 7. 3(화)
- 장소 : 북경 로얄플라자호텔

대한병원협회(김철수 회장)는 중국의원협회 차오롱귀 회장과 7월 3일 오후 6시반(현지시간) 생체나이측정시스템 중국병원운영시범사업 협약을 위한 체결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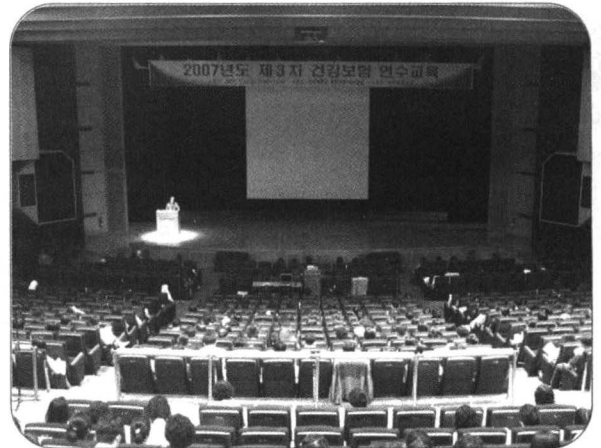
한·중 의학교류의 새 장을 여는 협약서는 "한·중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병원발전 및 양국 병원단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생체나이측정시스템'의 중국 병원내 시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여 한·중 의학교류의 서막을 열었다.

▶ 2007년도 제3차 건강보험 연수교육

- 일시 : 2007. 7. 25(수)
- 장소 :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대강당

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 전국의 병원관계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3차 건강보험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의 개혁(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을 비롯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리(심평원 심사실 심사2부 유인숙 부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심평원 종합관리개발실 심사전산화팀 공진선 차장),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이해(건강보험-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평가팀 이영재 사무관 / 의료급여-심평원 의료급여실 의료급여3부 정경숙 차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7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본다.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종합병원 심사결과 및 행정처분 관련 성명서

- 일시 : 2007. 7. 26(목)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천명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 발표직후 낸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심사결과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것임에도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병협은 이렇게 촉구하면서 복지부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협회소식

▶ KBS 라디오 열린토론

- 일시 : 2007. 7. 30(월)
- 주제 : 선택진료

"환자가 의사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특정의사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고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로 의학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선택진료제도는 마땅히 존속시키면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선택진료 관련 서울시내 5개 주요 대학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30일 '선택진료'를 주제로 한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박상근 보험위원장(인제대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과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병·의원 유형별수가계약 마땅

- 일시 : 2007. 8. 16(목)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와 관련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하여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며 수가계약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게 보내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유형별(병원과 의원 구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 2007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실시

- 일시 : 2007. 8. 20(월)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2007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은 256명 모집에 8명이 지원, 3.1%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레지던트는 456명 모집에 144명이 지원, 31.6%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후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기 전공의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 이를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성형외과와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 5개 진료과가 100% 이상의 지원율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진료과들은 대부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응시했다. 특히 방사선종양학과와 병리과는 지원인원이 한명도 없었다.